

# ‘땀띠’와 ‘땀약별’의 어원

김무림 ·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뜨겁게 작열하는 피서지의 태양이 벌써 그리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뜨거움은 자칫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지난여름의 해변이나 산에서 만들었던 아름다운 추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지라도 뜨거운 태양에 노출된 여러분의 피부는 여름을 단지 고통으로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한여름을 떠올리는 어휘인 ‘땀띠’와 ‘땀약별’의 어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표제어 ‘땀띠’와 ‘땀약별’의 정의를 국어사전에서 소개합니다.

### ■ ‘땀띠’와 ‘땀약별’의 정의

땀띠 「명사」『의학』 땀으로 피부가 자극되어 생기는 발진. 좁쌀 크기의 붉은색 또는 무색 발진이 오밀조밀하게 돌아 가렵고 따가운데, 특히 살과 살이 맞닿는 부위에 땀이 고여 있을 때 많이 생긴다. 【〈땀띠〉〈땀띠약〉〈땀띠〉←땀+땀띠】

땀약별 「명사」 여름날에 강하게 내리쬐는 몹시 뜨거운 별.

현대의 국어사전에 실린 ‘땀띠’와 ‘땀약별’의 정의를 보면 이 두 단어

는 서로 연관이 없는 어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소급하여 이들 어휘의 형성을 추적하면 어원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땀띠’의 역사적 형태를 추적하다 보면 ‘피약별’의 어원적 정체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 2

국어사전의 정의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땀띠’의 중세 국어 형태는 ‘썸되야기’이며, 이 말은 ‘썸+되야기’로 분석됩니다. ‘썸’은 현대 국어 ‘땀[汗]’으로 이어지는 단어이지만, ‘되야기’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중세 및 근대 국어 문헌에서 ‘되야기’의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세 및 근대 국어의 문헌에 나타나는 ‘되야기’  
되야기 내여 잇더니(出疹子來) 《번역노걸대 하:53》  
되야기 낫더니(出疹子來) 《노걸대언해 하:4》  
되야기(疹子) 《역어유해 상:62》

‘되야기’는 질병에 의하여 살갓에 부스럼처럼 불긋불긋하게 돋는 것을 말하며, 다른 말로는 ‘두드러기’나 ‘마마꽃’이라고 합니다. ‘되야기’는 이와 같이 단독으로 쓰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썸’과 합성어를 이루어 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되야기’의 의미를 고려하면, ‘썸되야기’는 뜨거운 여름철에 비정상적인 과도한 땀[汗]에 의해서 피부에 생긴 불긋불긋한 발진(發疹)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당시의 언중에게는 일종의 질병으로 인식되었다는 것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썸도야기’의 변이 형태를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썸되야기’의 세기별 변화 형태 출현 양상<sup>1)</sup>

|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20세기 |
|------|------|------|------|------|------|------|
| 썸되야기 | X    | O    | X    | X    | X    | X    |
| 썸또야기 | X    | X    | O    | O    | X    | X    |
| 썸도약기 | X    | X    | O    | X    | X    | X    |
| 썸도역  | X    | X    | O    | X    | X    | X    |
| 썸되   | X    | X    | X    | O    | X    | X    |
| 썸씩   | X    | X    | X    | O    | O    | X    |
| 썸씩   | X    | X    | X    | X    | O    | X    |
| 썸씩   | X    | X    | X    | X    | O    | X    |
| 썸딤   | X    | X    | X    | X    | O    | X    |
| 땀띠   | X    | X    | X    | X    | X    | O    |

■ 문헌 용례

썸되야기 불(癩) 《훈몽자회 중:33》

형역이 ㅈ 도돌 제 브리와 썸도약기와 곧느니 《언해두창집요 상:15》

브리과 썸도역이라 《언해두창집요 상:15》

썸또야기(起癩子) 《역어유해 상:62》

썸되 돛다(起癩子) 《동문유해 하:8》

썸씩 불(癩) 《왜어유해 상:51》

썸씩 《한불자전 466》

썸씩 《광재물보 형기:2》

썸딤 《광재물보 형기:5》

땀띠 《표준국어대사전》

1) 자세한 문헌 용례는 21세기 세종 계획 누리집(<http://www.sejong.or.kr>)에서 한민족 언어 정보 검색을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썸되’를 해당 누리집에서는 16세기와 18세기에 출현하는 형태라고 하였지만,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16세기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홈페이지의 정보를 조심스럽게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변화 형태를 참조하면 17세기의 ‘땀도역’이 주목됩니다. 아울러 현대 국어의 ‘땀약별’을 참조하면 중세 국어의 ‘되야기’는 어근(語根) ‘되약[疹]’에 접미사 ‘-이’가 첨가된 파생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땀되야기’는 최종적으로 ‘땀[汗]+되약[疹]+이(접사)’의 구조로 분석됩니다.

‘땀되야기’와 함께 ‘땀또야기’나 ‘땀도야기’라는 변이 형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세 및 근대 국어에서 ‘되’는 현대 국어의 ‘되’와 발음이 같지 않습니다. 중세 및 근대 국어의 ‘되’는 [toj]로서 ‘니’가 하향 이중 모음으로 발음되는 반면에 현대 국어의 ‘되’는 [tø]로서 ‘니’가 단모음으로 발음됩니다.<sup>2)</sup> 그러므로 중세 및 근대 국어에서 ‘되야기’는 [tojagi]로 발음되고, ‘도야기/도약이’는 [tojagi]로 발음되어 반모음 [j]의 겹침이 있거나 없거나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반모음 [j]의 겹침은 표면 발음에서 청각상의 차이를 거의 일으키지 않으므로, ‘되야기’와 ‘도야기/도약이’는 역사적인 변화 형태라기보다는 공시적인 변이 형태로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땀또야기’의 ‘또’는 현대 국어의 ‘또’와 발음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땀또야기’는 ‘땀’과 ‘도야기’가 합성되면서 사잇소리가 개입되어 경음화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세 및 근대 국어에서 사잇소리 현상에 의한 경음화는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대 국어 이후의 형태를 참조하면, 중세 국어의 ‘땀되야기’도 실제 발음을 충실하게 나타냈다면 ‘땀뵈야기’로 표기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8세기 근대 국어의 문헌에 나타나는 ‘땀되’는 ‘땀되야기’의 완전한 4음절 형태에서 ‘땀되’의 2음절 형태로 축약된 것입니다. 이미 근대 국어의 시기에도 낱말을 축약시켜 사용하는 경제성의 원리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

2) 현대 국어의 ‘되’는 흔히 ‘땀[twɛ]’나 ‘땀[twe]’로도 발음됩니다.

세기의 ‘쫄되’가 바로 현대 국어 ‘땀띠’의 형태적 원조입니다. ‘쫄되’가 18세기 및 19세기의 ‘쫄썩, 쫄썩, 쫄딕’ 등을 거쳐서 현대 국어의 ‘땀띠’가 된 것은 ‘썩’의 모음 ‘ㅡ’가 탈락한 까닭이며, 이것은 현대 국어에서 ‘영희’를 [영히]로 발음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sup>3)</sup> 중세 및 근대 국어의 ‘ㅅ’을 현대 국어에서 ‘ㅌ’으로 표기하는 것은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단지 맞춤법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하면서 국어의 경음을 합용 병서인 ‘ㅅ, ㅆ, ㅈ, ㅊ’ 등이 아닌 각자 병서 ‘ㄱ, ㄷ, ㅁ, ㅂ, ㅅ’ 등으로 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래의 ‘ㅅ’을 ‘ㅌ’으로 표기하게 된 것일 뿐입니다.

이제 ‘땀약별’을 설명할 차례입니다. ‘땀약별’은 중세 및 근대 국어의 문헌에 그 역사적인 소급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중(言衆)이 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현대 국어에서 단독어로 사용하지 않는 ‘땀약’이라는 한정어(限定語)를 ‘별[陽]’에 덧붙여 합성어를 만들었다는 사실로부터 ‘땀약별’이라는 말의 유래가 상당히 오래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별’이라는 단어도 중세 국어에서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아마도 근대 국어를 전후한 어느 시기에 ‘땀약별[땀약별]’이라는 단어가 조어(造語)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땀약별’은 단지 ‘두드러기’라는 증상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하기보다는 ‘땀띠’와 연관되어 조어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땀약별’은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별’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해석보다는 ‘(뜨거운 햇살에 의하여) 땀띠를 일으킬 만한 별’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땀약별’은 ‘쫄되야기’라는 합성어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단어를 바탕으로 하여 조어진 합성어라

3) 근대 국어 후기에 ‘쫄썩’은 ‘쫄썩[땀띠]’와 발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대 국어 시기에 제1 음절의 ‘ㅅ’은 ‘ㅌ’로 바뀌었고, 제2 음절 이하의 ‘ㅅ’은 ‘ㅡ’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는 논리적인 추측이 무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되약별’이 아니고 ‘띄약별’인 이유에 대해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되약별”이었는데 단순한 어두 경음화에 의하여 ‘띄약별’이 되었다고 한다면 달리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되야기’란 말이 잘 쓰이지 않고, ‘썸되야기[썸띄야기]’란 합성어가 활발하게 사용되는 상황에서 언중들은 ‘썸’을 제외한 경음화된 ‘띄야기’ 또는 ‘띄약’이라는 형태를 단독 형태로 추출하여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헌상의 출현 여부에서도 방증되는 것이기도 하며, 앞에서 언급한 ‘띄약별’의 조어론적 입장과도 합치되는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띄약별’은 그 조어(造語)의 출발에서부터 ‘되약+별’이 아니라 ‘띄약+별’의 구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 3

지금까지 ‘땀띠’와 ‘띄약별’의 어원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아울러 두 단어의 형태론적 측면에서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땀띠’의 ‘띠’와 ‘띄약별’의 ‘띄약’이 원래 같은 말이었다는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땀띠’의 ‘띠’의 형성은 ‘띄야기’의 3음절을 1음절 ‘띄’로 줄이는 경제성의 원리에 의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띄약별’의 형성은 ‘썸되야기/썸띄약’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이후에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추론 등이 오늘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역사에 대한 설명은 항상 실증에 근거하지만은 않습니다. 실증에 더하여 논리적인 추론이 전개되며, 여기에 설명력이라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원론은 본질적으로 언어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한 내용에서 실증을 보충할 만한 설명력이 필요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의 비판적 읽기에 대한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제 ‘땀띠’를 야기할 만한

‘피약별’이 뜨거운 여름도 지나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창가에서 독자 여러분의 서늘하고도 매서운 눈매가 독서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참고 문헌

김무림(2004),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김민수 편(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유창돈(1973), 《어휘사 연구》, 선명문화사.

21세기 세종 계획(<http://www.sejong.or.kr>): 한민족 언어 정보 검색

- 기타 자료 문헌 및 사전은 본문을 참조.